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총선은 끝났다. 여당은 참패하고 야당은 대승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그러나 혹자는 쫓아내기 싫은 몇 사람을 낙선시키지 못한 선거여서 질이 조금 낮은 대승이라고 짚짚해 하는 것 같다. 국회는 의석수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범야권 192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승을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선거에는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도록 온갖 정치를 피야 할 대통령은 이른바 민생투어라는 교묘한 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제 겨우 2년차이고 3년이 더 남은 대통령 임기에 대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가 전국에 메아리치면서 여당은 유례없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1960년, 우리는 고통학생이었다.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인데, 야당에서 ‘못살겠다. 잡아보자’라는 선거구호가 등장하자 민심이 밀물 쏠리듯 기울어 정말도 같아 보자는 여론이 가득했다. 정상적인 선거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다고 여긴 이승만 정권은 상상할 수 없는 부정선거를 감행했고 선거날인 3월 15일 마산에서 부정선거 규탄 데모가 일어나 세상이 요동쳤으며, 끝내는 4·19가 일어나 가짜로 당선된 대통령이 하야하고

“3년은 너무 길다”

하와이로 도망가는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다. ‘사바사바’라는 부정부패의 상징적 언어가 자유당 12년의 종말을 가져오게 하였고 더 질이 나쁜 부정선거는 끝내 대통령을 자리에서 쫓아내는 불행으로 결론났다. 윤석열 정권 2년은 어떠했는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참으로 귀한 선거구호로 집권했지만 시작부터 불공정과 몰상식이 정치의 중심에 자리하는 정권이 되어 버렸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2년이 계속됐다. 구중공권인 청와대를 옮겨 국민과의 소통을 활발하게 하겠노라던 약속은 과연 지켜졌는가. 2년 동안 기자회견 한 번 한 적이 있는가. 야당 대표와 회담 한 번 가진 적이 있는가. 이렇게 하고도 국민과의 소통이 가능했다는 것인가. 민족정기를 고양하여 정의로운 국민정신을 함양해야 할 정부는 참다운 독립운동가들을 배대하고 독재자인 이승만이나 치켜세우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 그런 정권을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는가.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민족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문제들까지 일본에 굴종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대한민국의 정부란 말인가.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친일파들이 큰소리치면서 친일이 뭐가 문제냐고 떠드는 세상을 만들었으니 그레도 대한민국 정부란 말인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외교적 조치와 평화적 방법으로 남북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생각이 없지는 않지 않나. ‘선제공격’이나 ‘과감한 응징’이니 이런 말만 부르짖으며 전쟁 위기만 고양시키고 있으니 국민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는가. 18년의 군사독재와 12년의 신군부 독재에 시달릴 대

로 시달린 국민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검찰독재’가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3년을 더 기다릴 수 있으리요. 그래서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에 우리의 건전한 민주 국민들은 환호하면서 선거에 임했던 것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법안들을 과감하게 거부하는 반(反) 민의의 정권을 어떻게 그냥 두고 볼 수 있는가. ‘자유’를 떠들어 대기만 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강권리 말살하려는 온갖 작태를 부리고 있는 정권을 3년 동안 어떻게 더 지켜볼 수 있겠는가. 국회의원 숫자 108대 192의 결과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했던 대로 무능·불통의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태원참사 등 수많은 백성들의 죽음에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그 역울한 영혼들을 달래주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런 무도한 정권을 역사상 어디서 볼 수 있었던가. 고요하고 잔잔한 강물도 성난 파도로 변하면 배를 뒤엎어 버린다. 민심이 천심인데 화난 민심은 아무리 큰 권력도 언젠가는 무너뜨리고 만다. 3년 이 너무 길다고 여기는 민심을 온전하게 달래주지 않고는 3년은 절대로 기다리지 못한다.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했으니, 옳은 국민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 진정으로 권력이 육신나서 3년을 채우고 싶다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공정과 상식’을 언어 그대로 살려내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해야 한다. 3년을 못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탄핵을 주장하는 정당이 있는데 예전대로 그런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라면 대오각성하여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동네입니다.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닌, 도시이면서 동시에 시골의 정취가 풍기는 조용하고 아늑한 곳입니다. 동네로 들어오다 보면 이곳 무등산의 이마가 훤히 보이지요. 원만하고 덕스럽고 넉넉하고 편안한 모습입니다. ‘무등’이라는 이름답게 어떤 차별도 없는 절대 평등을 지향하는 산.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기쁜 사람 슬픈 사람,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모두 다 보듬어 줄 것 같은 품 넓은 산입니다. 그 아래 깎듯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이렇게 가까이 느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흔히 삶은 잠깐의 소풍이며 우리는 곧 돌아가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만, 그런 잠시 있어두고 여기 오래오래 머물러 있어도 좋겠습니다. 상처받고 쓰러린 마음도, 고달프고 서러운 기억도 여기 이 산자락에 기대어 있으면 왠지 모르게 거뜬해질 것 같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과묵한 스승처럼 묵묵할 따름이지만, 그로 하여 오려려 더 깊은 깨우침을 얻게 하곤 하니까요. 눈앞에 봄이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눈앞에

봄이 전하는 말

서 봄을 봅니다. 오기가 싶으면 어느새 가버리는 아슬한 계절이지만, 지금은 휘날리는 벚꽃과 쑥쑥 내민 새싹들의 향연으로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봄은 확실히 뭔가를 ‘보여주는’ 계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봄은 두 뺨과 두 귀와 두 볼로도 오지만, 역시 두 눈으로 올 때가 진짜 봄인 듯싶어요. 별사람을 뿌려놓은 듯 또렷도룩한 봄까치꽃이나 이제 막 고개를 내민 어린싹이 화들짝 눈앞에 다가설 때,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봄을 본 것이죠. 영성하던 산이 나날이 빼곡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푸른 솔만 보이더니 여기저기 산벚꽃이 환히 피고, 굴참나무, 느티나무, 벚오동, 싸리, 짙레 들도 손 흔들어 출석을 알립니다. 저마다 ‘저요, 저요’ 제 존재를 밝히느라 약간의 소란은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조용할 수도 없겠지요. 가히 혁명이라 할 만큼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산은 아무 소리가 없습디다. 정중동(靜中動)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고요 속에 펼쳐지는 눈에 띄는 변화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산은 온갖 생명을 품고 있으면서도 전혀 요란하지 않습니다. 모든 색채를 다 지니고 있으면서도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산은 고요한 가운데 숨 없이 움직이며, 움직이는 가운데도 고요를 잃지 않습니다. 고요와 움직임을 환상의 하모니를 이룬 듯 다정하고 조화롭고 심지어 신령스럽기까지 합니다. 얼마든지 믿고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길을 걷습니다. 벚꽃 휘날리고 쪼르릉 다람쥐가 달려가고 나무 아래 여인들이 맺이 소풍을 즐기고 있네요. 넓게 편 자리에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

채 봄날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나온 듯 옆에는 커피도 있고 빵 봉지도 보입니다. 도란거리는 말소리와 정겨운 웃음소리와 활날리는 벚꽃잎이 맑게 쌓여 가고 있습니다. 향긋하고 나긋나긋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문득 이 모든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익숙하게 봐온 풍경인데 왜 불쑥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오늘따라 왜 유독 새로워 보일까요? 새싹은 왜 돋고 꽃은 왜 또 이리 예쁘게도 피었을까요? 혹시 못다 한 말이라도 있는 걸까요? 꼭 다시 들려주고 싶은 말이라도? 곰곰 봄의 전언을, 꽃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이런 것은 아닐까요? 그대여, 흙을 털고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 움직여라. 너는 분디 움직이는(동) 존재(봄)가 아니냐. 몸도 움직이고 생각도 움직여라. 길 위에서 길을 만나라. 절망도 냉소도 다 버리고 오직 너의 보폭에 집중하라. 꽃 피는 아침과 꽃 지는 저녁을 기억하라. 기쁨도 슬픔도 내 안에 있는 것, 너는 ‘지금 여기’를 노래하라. 봄은 최선을 다하여 말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다시 낮섬과 설렘과 충격을 주어서 마음까지 새롭게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봄은 그러려고 다시 왔나 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 삼백배순다섯날을 손뼉이 기다려왔나 봅니다. 어디 멀리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 날을 기다려 왔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여기 밝고 환한 꽃으로 피어서, 연초록 새싹으로 돌아서 간 테마 다 짙짙 눈부신 광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세하고 따듯하게 말합니다.

社說

민주당-조국당 경쟁보다 협치 민심새겨야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은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범야권 승리의 중심축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을 포함해 175석으로 21대 총선보다 5석 줄었지만 단독 과반을 넉넉하게 넘겼고 조국혁신당은 비례 정당 투표에서만 12석을 확보해 제3당이 된 돌풍을 일으켰다. 민심은 민주당에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이 가능한 180석 이상을 주지않았다. 180석은 군소 정당과 연대 없이도 개헌과 대통령 탄핵 등 일부만 제외하고 단독으로 입법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런 만큼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야 정권 심판과 경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호남 득표율을 보면 민심의 요구를 더 명확하게 읽을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광주에서 47.72%를 득표해 민주당 (36.26%)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고 전국 평균보다도 2배 이상 높았다. 민주당보다 선명하게 정권 심판론을 제기한 조국혁신당에 더 많

은 표를 준 것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력해 무능하고 불통의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라는 요구다.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협력하기보다 벌써부터 정국 주도권 경쟁을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선 교섭단체 구성이 가장 큰 현안인데 선거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공약한 민주당 일각에서 그렇게 할 경우 주도권을 뺏기는 것 아니냐며 경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니 안타깝다. 본질적으로는 차기 대권가도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한 조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경쟁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시점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다시 한번 이번 총선에 담긴 민심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경쟁보다는 협치를 통해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등에 있어 국정 기조 변화를 이끌어내라는 민심의 준엄한 요구가 아니었던가. 특히 민주당은 180석을 가지고도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21대 국회를 반연교사 삼아야 한다.

지하철 공사로 사라진 횡단보도 안전 쟁겨야

광주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 횡단보도가 공사 시설물 등으로 막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일부 구간의 경우 보행자 통로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고, 차량 정지선이 없는 구간도 있어 보행자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상태다. 도로교통법상 공사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점령하게 될 경우 시공사는 경찰 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횡단보도 절반 이상 점용금지 등 최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같은 경찰의 권고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광주 도시에서는 현재 광주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광주시청-광주역, 17km)와 2단계(광주역~첨단~광주시청, 20km) 공사가 진행중이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공사현장을 살펴본 결과 광주구대 인근 한 횡단보도는 한 사람

이 겨우 걸을 수 있는 공간만 남기고 방호벽으로 모두 막혀 있었고 보행자 통로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사실상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특히 걸음이 느린 노인들의 경우 방호벽 때문에 통로가 횡단보도 밖으로 나 있는 바람에 일직선으로 건너지 못하고 주변을 빙 돌아가야 해 도로 중간에 멈춰서야 하는 등 아슬아슬한 모습도 보였다. 치평동 운전초 인근 거리부터 삼우역까지 350여m 구간에 설치된 3개의 횡단보도 역시 모두 공사로 인해 절반 이상이 가려져 있어 유명무실했다. 지하철 공사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시민들을 위협한 도로로 내모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시공사들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안전한 보행 여건을 만들고 경찰도 지속적인 대책회의를 개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역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내부 지침 등을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잔치는 끝났다/ 물 떨어지고, 사람들은 하나 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갔지만/ 마지막 섶을 마치고 제각기 신발을 찾아 신고 떠났지만/ 어렵פות이 나는 알고 있다/ 여기 홀로 누군가 마지막까지 남아/ 주인 대신 상을 치우고/ 그 모든 걸 기억해내며 뜨거운 눈물 흘리리란 걸” 최영미 시인의 그 유명한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시의 일부이다. 1990년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시집의 표제시인 작품은 회화적 이미지와 냉소적 시각을 담고 있다. 시대적 배경이나 세대 상징성 등 논란은 차치하고 작품은 잔치가 끝난 시점의 풍경을 도시적 감성으로 그린 수작이다. 왠지 지겹게 잔치 뒤끝의 풍경을 이보다 더 서정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묘사한 시는 없을 법하다. 총선이라는 ‘잔치’가 끝난 지 5일이 지나가지만 선거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정권 심판론’으로 귀결된 원인과 향후 전망 등을 두고 백가쟁명식 분석과 처방이 쏟아지고 있다. 정파 또는 정치 성향에 따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것이다. 그럼에도 다수 정치 평

론이나 정당 관계자 그리고 언론 등은 대체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무능, 불통, 독선 등을 패배의 주요인으로 꼽는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축제이자 잔치’라는 말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본질적으로 유세현장이나 축제장은 시끌벅적하고 사람들로 북해야 신명난다. 노래(로고송)가 울려 퍼지기도 하고 가수나 배우 등 인기 연예인이 출연해 인증샷을 찍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축제 프로그램(공약)이 펼쳐져야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축제와 잔치는 끝나기 마련이다. 하물며 인생이라는 축제도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치달아가는 과정에 다름없다. 축제는 초대받은 손님들을 주인처럼 대우하고 대접해야 후에 ‘잔치상 걸었다’는 말을 듣게 된다. 총선에서 진 당이나 낙선자들은 주인이자 국민을 진정히 ‘주인’으로 대우했는지 성찰해볼 일이다. 안타깝지만 ‘선거, 잔치는 끝났다.’ /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기 고

‘숲속의 전남’에 기업들도 함께 하길



윤병선
숲속의 전남 자문위원장(임학박사)

‘숲속의 전남 만들기’는 지속가능한 미래사업이다. 전남의 녹색 변화를 이끄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다. 이 사업은 전남을 하나의 거대한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정원 같은 숲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이미 1억 그루 나무 심기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이 단기간에 성과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 공원같은 매력적인 전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는 앞모임의 활동에 확실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순간 전남은 어디를 가든지 가로수와 담장 너머 벚꽃, 개나리, 산수유, 매화, 동백 등 다양한 꽃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경관을 자랑하게 되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탄생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도 지

역사회가 이제 함께 꽃과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힐링 공간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해 1000만명이 다녀간 순천만 국가정원은 우리 국민 마음 속에 국가정원으로 우뚝 자리를 잡았다. 뿐만 아니라 민간주도로 마을마다 가정에서는 예쁜 꽃과 나무를 심어 모든 사람에게 힐링과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정원은 이미 30개소를 넘었으며, 그 대부분이 누구에게나 공개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성과다. 마치 전남 전체가 꽃과 나무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정원이 된 듯하다. 이러한 숲속의 전남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사)숲속의 전남이라는 민간 비영리단체가 설립되었으며 법인 및 일반회원 400여 명은 10년 동안 열성적인 참여와 봉사로 이러한 분위기를 이끌어왔다. 민간 중심의 ‘숲속의 전남 추진협의회’가 그 근간이 되는데 여기에는 종교단체, 임업단체 대표 등 시·군에서 추천한 22명, 그리고 경관·산림·환경 등 전문가 12명, 50여명의 이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역량을 한데 모아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 및 산림 ESG 경영 강화를

위한 기업과의 협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현재 (사)숲속의 전남 후원 기업은 10여 개사로, 이들 기업은 생활 속 나무심기 운동을 계속 추진해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참여하는 기업 이외에도 꽃과 나무로 가득한 매력 있는 숲속의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도내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산림 보전과 ESG 경영을 강화하는 사회공헌 사업이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기업들도 환경 보호와 산림 ESG 경영 사회공헌 사업이 지역사회와 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숲속의 전남 제5기 임원진 출범과 함께 산림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산림청 등 행정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3대 가족 정원 만들기, 소외계층 숲체험 교육, 명품숲 발굴 시장 계획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숲속의 전남에서는 앞으로 산림 탄소 중립 ESG 경영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들이 공공유지를 활용해 명품숲 동산을 조성하도록 유도, 매력있는 숲속의 전남 랜드마크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곳곳에 조성된 숲은 도민들에게 아름다운 쉼터로 사랑받을 것이다. 기업들의 지역공헌사업이 숲속의 전남과 만나 더 활기를 띌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